

2014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12.23(목) 12:00~13:1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 8일 정치세력 업은 '정피아' 금융권 요직 장악 내용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관피아', '정피아'와 관련, 배경을 등에 업고 무능력하고 관련경험이 없는 인사들의 낙하산식 인사관행을 지적하는 보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한 듯함. 단순히 그들이 대선캠프 출신이라던지, 서강대 출신이라던지 하는 등의 출신만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해당기관과 관련한 학문적 배경이나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 정도의 분석은 포함되어야 보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이용우 위원)
- 사조산업의 원양어선인 501오룡호가 서배링해에서 좌초 된 사고와 관련해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보도내용이 팩트 위주의 내용으로 다른 매체와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음. 특히 오룡호는 36년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이 20년, 30년 이상 된 노후 원양어선이 얼마나 있는지? 최근에 출범한 국민안전부는 이번 오룡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번 사고와 같이 해외사고의 경우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정부가 대응하는지? 세월호 이후 관련 후속법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이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다루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듯함(성낙용 위원)
- 2일 '뉴스1번지'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관련 보도에서 신정아 사건,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건, 여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대 교수 면직 처리 건, 20대 남성이 강제로 키스하려던 여성의 허를 깨물어 다치게 한 사건, 인천 가천대 길병원 음주 수술 의사까지 등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았는데 각각의 사건에 대해 그리고 앵커의 질문에 박지훈 변호사가 자세하고 알기 쉬게 설명을 해주어 좋았음. 또한 성추행 관련 여러 사건들을 짚어 보는 시간인 만큼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해 할 수 있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점 그리고 법적 처리수준 등을 함께 언급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 하지만 박지훈 변호사가 각종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려진 인물이라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는 느낌도 있음(성낙용 위원)
- '알콜중독 책임 져라. 주류회사 상대 소송' 보도에서 흡연피해자의 집단 소송 이후 최근 알콜 중독자가 주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음주피해 소송이 제기된

것이 뉴스Y에 보도되었음. 흡연소송에서도 피해자 측이 패소했는데 알콜중독 소송에서 주류회사나, 국가가 경고문구를 제대로 게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승소하기란 어려워 보임. 어떤 의미에서 이는 대중의 눈길을 끌어보기 위한 기획소송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됨. 그런 점에서 이번 보도를 단순히 흥미적 관점을 넘어 의도된 기획소송이 우려된다는 점 까지 집어쬐으로써 좀더 균형잡힌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인상을 받았음(최진영 위원)

- 11월 31일 11시 '투나잇23'에서 정윤희씨 관련 보도를 하면서 청와대의 대응에 대하여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하여 두루뭉술한 기자의 전망기를 내놓음. '정치권에서는', '일각에서는', '청와대는... 곤욕스러움도 감지된다', 등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기사를 전달함. 추측성 익명 정보원 보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1일 7시40분경 '출발640'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 격차를 지적한 것은 좋았으나 FA 계약에 뒷돈 의혹 제기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추측하여 보도하는 모양새를 보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나 의혹 제기는 주의하기 바람(양승찬 위원)
- 18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판결문 발표 생중계는 발표에 집중하여 전달해야 했음. 발표 도중 안국역 집회 소식 및 기자, 전문가의 논평을 내놓아 발표문 자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사건의 뉴스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타 방송사와의 차별성만 생각한 것으로 보임. 시청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화면구성 및 부적합 표현, 자막 등 개선필요

- 14일 21시 다른 뉴스가 나갈 때 뉴스속보로 이재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했다. 세계일보 보도내용 사실이 아니다" 자막이 나옴. 이는 속보 자막과 다른 뉴스가 나올 때 뉴스속보로 나갈 정도의 중요도가 높은 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속보의 남발로 보임(성낙용 위원)
- 14일 19시 뉴스화면 상단 '토막살인 박춘봉 구속연장 발부' 자막과 동일한 자막이 하단에도 나옴. 이는 자막의 남용으로 보이며 오히려 시청자의 시청을 방해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임(성낙용 위원)
- 8일 뉴스 리뷰 땅콩리턴 '조현아 부사장' 사건을 다루는 뉴스리뷰 < 오늘 '생각' >에서 시민들 인터뷰를 하는데 매일 되풀이 되듯이 서울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건이 항공과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인천공항이나 최소한 김포공항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더라면 더욱 생동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됨(이용진 위원)
- 23일 '뉴스와이 12' 뉴스 화면 구성을 보면 왼쪽 위에 뉴스 제목이 들어가고, 왼쪽 아래에는 연합뉴스와 뉴스와이라는 로고가 정육면체에 들어가 있고, 화면에는 뉴스 자막, 화면 아래에는 띠 자막이 제공되고 있음. 화면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집중하기 쉽지 않고, 화면이 딱 차 있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듬. 화면 구성을 할 때 여백의 미학을 살려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22일 '뉴스와이 10'에서 뉴스의 헤드라인은 시청자로 하여금 뉴스의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약글임. '가을학기제 도입 검토... 노동 유연성을 높인다'라는 뉴스의 헤드라인은 서로 상이한 내용을 말 줄임표로 붙여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함. 리포팅 된 뉴스 내용을 시청하면 '가을학기제 도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대한 내용은 구분되어 있지만 자칫 헤드라인만을 봤을 때는 마치 "가을학기제 도입이 노동 유연성을 높인다"는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어 내용 이해에 혼선을 주게 만들. 요즘은 휴대기기를 통해 뉴스를 빠르게 보거나 제목만을 확인하는 대중들도 많은 만큼 헤드라인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됨(이헌규 위원)
- 조현아 비행기 회항 사건을 보도할 때 어떤 때는 제목을 "땅콩 리턴"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땅콩 회항"이라고 보도하고 있었는데 뉴스 제목을 붙일 때는 용어를 통일하면 좋겠음(최현철 위원)
- 14일 19시 '뉴스 Y'에서 지난 10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신은미·황선씨의 토크 콘서트장 폭발물 투척사건 관련 보도시 "신은미가~"로 표현함. 방송에서 호칭을 '~씨'로 통일하다가 이 때 만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미미하지만 발언 실수 등으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함이 필요해 보였음(성낙용 위원)
- 8일 '정부 "철밥통 깨겠다"..호봉성과급 복합임금제 추진' 내용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제, 직무성과급제, 임금피크제로 각각 전환하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보도와 함께, 이에 대한 코멘트를 보도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대체로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의견만을 보도해서 균형을 잃은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됨. 특히 "젊을 때는 부러먹다 늙으니 버리겠다는 의미" 등 감성적이고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듯한 표현이었음. 아울러 제목면에서도, 임금피크제는 아직 본격 도입되지 않았지만, 직무성과급제는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수년 전부터 채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놓고 "철밥통을 깨겠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다소 변화에 뒤쳐진 표현임(이용우 위원)
-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보도내용에서 뒷차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과 음향을 내보냄으로서 생생한 현장상황을 전달한 점은 훌륭함. 하지만 보도 제목에 제네시스라는 특정 차량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이 보도지침에 부합하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음(최진영 위원)
- 통진당 재산 가압류 결정 보도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의 특성은 채무자 몰래 빨리 재산을 묶는 것임. 즉 밀행성과 신속성이 요체인데 언론이 정부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그 내역을 세세히 보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상당히 의문임. 것은 뉴스Y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언론의 문제이기도 함(최진영 위원)
- 땅콩리턴 관련 보도에서 하단 자막에 '사무장 조현아 욕설, 폭행 자막 나감 ->

자막 실수가 있었음. 또한 14일 21시 '뉴스Y' 인도 자바섬 산사태 관련 소식 보도 중 '이재만 비서관 관련' 자막 나감. 이는 방송사고로 주의가 필요함(성낙용 위원)

- 22일 뉴스속보자막에 '이용대-유영대 슈퍼시리즈 우승'이라고 나오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슈퍼시리즈가 국내인지 어떤 대회인지 알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014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슈퍼시리즈 파이널에서 우승'이라고 자막을 내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됨(이용진 위원)

▲ 프로그램기획 및 편성의견

- 차제에 신년기획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회공헌 사례들'을 시리즈로 보도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순기부에서 임직원 참여활동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상기보도와 같은 業연계 공헌활동으로 진일보하고 있음. 개인기부도 사회복지모금회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사이에 고액기부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풍부한 보도사례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됨(이용우 위원)
-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보도내용에서가 사실 보도를 넘어 이와 같은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한 후속 보도를 통해 유사범죄를 막는 역할도 했으면 하는 바람임(최진영 위원)
- 7일 세계문화유산 탐방기 '프랑스의 자존심 루브르' 편은 주말 오전 적절한 교육적 콘텐츠였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성 시간을 길게 가져가도 좋을 것으로 보임(양승찬 위원)

▲ 긍정적인 평가

- 9일 '모두가 행복하게' 장애인 위한 따뜻한 기술개발 내용은 IT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보다 윤택한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추운 연말에 이웃들을 훈훈하게 만드는 좋은 보도의 사례였음.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어 바로잡는 것만이 뉴스의 역할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례들을 발굴하여 주변에 알리는 것도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로 생각됨(이용우 위원)
- 21일 '월드리포트 That's why 브라질의 시민기자들'에서 언론에 대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참언론이 가져야 할 문제의식을 담담히 보도해주어서 좋았음. 특히 নিজ기자들이라 불리는 시민기자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사명감 등은 기존 언론에 시사하는 바가 많게 느껴졌음. 무척 좋은 보도를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음(이용진 위원)
- 8일 뉴스Y 보도에서 청와대 심상회 등 측근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역대 정권들의 측근비리를 심층적 보도는 아니었어도 정권별로 문제점들을 다룬 것은 매

우 시의적절하게 느껴졌음(이용진 위원)

- 22일 '출발640'에서 국민 누구나 정기검진을 권면 받는 암 검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이라는 질병에 아직도 큰 두려움을 안고 있어 필요 이상의 잦은 검진을 권면 받고 있음. 특히 여성의 경우 방사선 촬영으로 검진이 이뤄지는 '유방촬영검사'가 40대에서 60대의 유방암 사망률을 줄이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과 암 과잉진단 노출로 인한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오진에 대한 문제점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한 뉴스내용은 일반인이라면 접하기 힘든 내용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유익한 내용이었음. 최근 의료 관련 부작용의 상식 부재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사각지대의 의료 및 건강 정보가 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음(이헌규 위원)
- . (끝)